

성원용 교수, 국제 전기전자 공학회(IEEE) 석학회원(Fellow) 선정

국내 30여명의 IEEE 석학회원 중 11명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소속



성원용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학부장 이광복) 성원용 교수(59세)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되었다. IEEE 회원의 최고 등급인 Fellow는 반도체, 전기, 전자, 통신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인 회원 중 탁월한 자질과 연구개발 업적 등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매년 선출되는 총 석학회원의 수는 투표권이 있는 총 회원수의 0.1%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IEEE Fellow 회원 자격은 매우 영예롭고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고 있다.

성원용 교수(59세)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타바바라 (UCSB)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9년 2월부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디지털 신호처리와 실시간 신호처리 시스템 설계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전기전자공학회의 “신호처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전기·정보공학부 기금 출연 명판식 열려

권욱현 명예교수, 송명철 대표이사 학부 발전을 위해 각각 1억원 쾌척



(좌측부터) 권욱현 명예교수, 송명철 대표이사, 방승찬 책임연구원, 이광복 학부장

1월 20일 서울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전기·정보공학부 기금 출연 명판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권욱현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전기 20회), 송명철 대표이사(전기 23회, 안성전기), 방승찬 책임연구원(전자 38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출연 금액은 권욱현 명예교수 1억원, 송명철 대표이사 1억원, 방승찬 책임연구원 2천만원으로 학부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세 출연자 모두 전기·정보공학부 출신(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으로 이날 행사에서 학부에 대한 애정과 후배들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Contents

- 01 학부 소식 06 신입교수 인터뷰 07 학생 인터뷰
- 08 전기·정보공학부 하나되는 날들이 10 따뜻한 겨울 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 12 BK 21 플러스 소식 14 해동 다독자상 수상자 인터뷰

Contact Us

151-7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Tel 02-880-7241
Fax 02-871-5974
<http://ece.snu.ac.kr>

차상균 교수, 국가정보화 '근정포장' 수상



차상균 교수

조한국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정보화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는 차상균 빅데이터연구 원장(사진)이 12월 5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정보화

유공 '근정포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상균 원장은 2000년 국내 최초로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글로벌 벤처를 설립했다. 이후 세계 1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독일 SAP와의 전략적 M&A를 이끌어 냈다. 서울대 실험실 벤처를 SAP 한국연구

소로 전환해 SAP와 함께 HANA 인메모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130 여명의 핵심 시스템 SW 분야 글로벌 기술자를 키워냈다. 올해 4월에는 서울대에 초학제적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주도하는 'SNU 빅데이터연구원'을 출범시키고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재홍 교수, 서울대학교 '훌륭한 공대교수상' 수상



이재홍 교수

부 신현식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강신형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014년 9월 24일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렸다. 서울대 '훌륭한 공대교수상'은 공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산업

서울대 공대는 올해의 '훌륭한 공대교수상' 수상자로 전기·정보공학부 이재홍 교수, 컴퓨터공학

기술의 선진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1992년 7월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제정됐다. 2003년부터 교육상과 연구상의 2개 부문으로 시상해 오다가 올해부터 교육상, 학술상, 산학협력상의 3부문의 확대에 그 의미가 더욱 커졌다.

이재홍 교수는 1987년 서울대에 재직한 이래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활동과 세계적인 학술 성과로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그 동안 발표한 국내외 정

기학술지 약 90편의 논문과 137편의 컨퍼런스 자료가 3800회 이상 피인용되는 놀라운 업적을 기록했다. 이 중 LTE 핵심기술인 OFDM을 다룬 논문은 최대 1400여 회 피인용되며 LTE 기술 정립 및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해동논문상,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해동학술상, 황조근정훈장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서울대 공대 부학장, 대한전자공학회장, IEEE 이동체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정우 교수, '한국통신학회 어윈 제이콥스상 (KICS-Dr. Irwin Jacobs award)' 수상



이정우 교수

이정우 교수가 '한국통신학회 어윈 제이콥스상 (KICS-Dr. Irwin Jacobs award)' 을 수상했다.

어윈 제이콥스상은 미국 쉐콤사 창립자의 이름을 따 한국통신학회와 미국 쉐콤사가 공동으로 국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정우 교수는 무선통신 및 신호

처리 분야에서 탁월한 저술 및 연구 활동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0월 23일 ICTC 2014 학회(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심형보 교수, 신양공학 학술상 수상



심형보 교수

상식을 가졌다. '신양공학학술상'은 태성고무화학(주)의 창업자이자 서울대 공대 동문인 산양문화재단 정석규 이사장이 공대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2014년 11월 26일 12시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신양공학학술상 시

젊은 교수들을 위해 모교에 대학발전 기금에 출연하여 제정한 상이다. 정 이사장의 호를 따 '신양공학학술상'으로 명명한 이 상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직 교수 중 부교수 및 정교수로 승진하는 49세 미만의 젊은 교수 중 업적이 가장 뛰어난 교수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올해로 10회째 시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57명이 상을 받았다. 신양공학학술상의 제정으로 젊은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4년 신양공학학술상 수상자로는 교육분야에 건축학과 백진 교수, 학술분야에 전기·정보공학부 심형보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김호영 교수, 컴퓨터공학부 권태경 교수, 산학협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산학협력분야에 건설환경공학부 유기운 교수, 재료공학부 한홍남 교수 등 총 6명이 선정되었으며, 부상으로 신양공학연구기금도 함께 전달되었다.

김성준 교수, 빛 이용한 신경조직 자극법 개발



김성준 교수

김성준(서울대) · 변경민(경희대) · 전상범(이화여대) 교수 공동 연구진이 빛을 이용한 신경조직 자극 방법을 개발하였다.

손상된 감각이나 운동신경을 치료하거나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 중 전기 자극법은 전극이나 시스템을 직접 환자에게 수술로 이식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외부에서 초

음파나 자기장을 이용한 신경 자극법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하고 국소적인 자극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엄경식 연구원(학부 박사과정생)은 적외선을 흡수해 열을 발생 시키는 금 나노막대 기반의 '나노히터'를 개발해 이를 실험동물의 국소 신경 조직에 주입한 뒤 실험동물에 적외선을 비추었다. 그 결과, 신경세포 근처에 있는 금 나노막대에서 국소적인 열이 발생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신경이 자극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극이나 시스템을



S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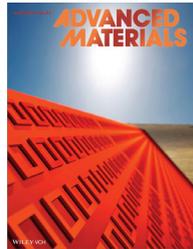
이식하는 전기적 방식과 달리 체내 이식 장치 없이도 외부에서 쏘인 빛으로 국소적인 신경 자극이 가능하며, 향후 파킨슨병이나 간질과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경 보철장치에 활용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Small' 10월 15일자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이창희 교수 연구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자점 발광소자' 효율 변화 원인 밝혀



이창희 교수

이창희 교수 연구팀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밝은데다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해 궁극의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양자점 발광소자'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밝혔다. 연구팀은 발광소자의 발광층에서 발생하는 양자점들 사이의 에너지 전



Advanced Materials
Volume 26

달 현상이 소자의 효율을 떨어트린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런 에너지 전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팀은 양자점의 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적색 소자 중 세계 최고 밝기를 지니는 고효율 양자점 발광소자를 제작하는데 성

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차세대 고색순도 디스플레이와 고휘도 조명 등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Influence of Shell Thickness on the Performance of Light-Emitting Devices Based on CdSe/Zn1- XCdXS Core/Shell Heterostructured Quantum Dots'라는 제목으로 재료분야 과학전문지 'Advanced Materials'지 12월17일호에 게재됐다.

백윤홍 교수, 하반기 도약연구 중견연구자 신규과제 선정 (1단계 3년간 총액 9억원 규모)



백윤홍 교수

한국연구재단은 올 10월 30일 1차 발표에 이어 12월 11일에 2014년도 하반기 도약연구 신규 과제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 많은 과제들이 선정을 위해 경쟁한 끝에, 전기·정보공학부에서는 백윤홍 교수 연구실이 "보안 기능이 집적된 차세대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가능한 IP 및 통합 SDK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중견 연구 과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백 교수 연구팀

은 2008년 이후 5년간 국가지정연구실(NRL)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드웨어 최적화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선행 기술들을 오늘날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보안 분야 연구들에 접목하여, 연구팀은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미개척지였던 보안 하드웨어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모바일 단말 및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보안 솔루션들을 개발 해왔다. 그 연구의 결과로 최근 몇 년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오며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했으며,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보안 분야의 최고 권위 학회인

ACM CCS와 Usenix Security에 순수 국내 연구진만으로는 최초로 논문을 게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역시 출원하였으며, 현재 이들 연구 결과물 중에 몇몇 핵심 기술들은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에 이전되어 상용화 준비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통해 이러한 초기 연구들의 연장 선상에서 보안 감시 기능에 최적화되어 성능 부하를 극도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모듈들을 설계하고,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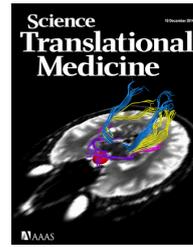
권성훈 교수 연구팀, '맞춤형 항생제' 3시간이면 찾는다



권성훈 교수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박테리아에 맞는 항생제를 기존의 방식보다 7배 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항생제에 대한 박테리아의 반응을 직

접 비교 관찰하는 기법으로 서너 시간 만에 적절한 항생제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기존에는 박테리아에 항생제를 투여한 액체를 배양한 뒤 탁도를 통해 증식 여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16시간에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다. 연구팀은 환자에게 적합한 항생제를 찾아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짐에 따라 조기 치료



Translational Medicine

를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항생제 투여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술권위지 '사이언스 트랜스래셔널 메디신' 12월호에 실렸다.

차상균 교수, 서울대학교 법인 이사 선출



차상균 교수

서울대학교 신입 이사로 전기·정보공학부 차상균 교수가 선출됐다. 차상균 교수를 포함하여 총 6명이 신입 이사

로 선출됐으며 내부 이사로는 차상균 교수와 신희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외부 이사로는 나은영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백성기 전 포항공대 총장, 선우명호 한양대 경영부총장,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이 선출됐다. 신입 이사는 교육부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아 2014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 활동한다.

서울대 이사회는 총장·부총장 2명·교육부 차관·기획재정부 2차관 등 당연직 이사 5명과 학내·외 이사 1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전국진 교수, IEEE Region 10의 차기 디렉터 (Director-elect) 로 선출



전국진 교수

전국진 교수가 IEEE Region 10의 차기 디렉터 (Director-elect)로 선출되었다.

전국진 교수는

총 3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 7만 5천여명을 상대로 8월 15일부터 실시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IEEE Region 10의 차기 디렉터로 당선됐다.

IEEE Region 10은 IEEE membership을 기준으로 한 10번째 권역으로

Asia & Oceania 지역을 포함하는 11만 4천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회원의 26%에 해당한다. Region 10 Director는 IEEE 본부 27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서 Asia & Pacific을 대표하게 된다.

노종선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 문승일·이병호 교수 일반회원 선정



노종선(좌), 문승일(중), 이병호(우) 교수

노종선 교수가 2015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문승일, 이병호 교수가 일반회원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 및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공학기술인을 발굴, 활용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특별법인단체다. 2014년 현재 정회원, 일반회원, 원로회원, 교포회원, 외국회원 등 모두 858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박병국 교수, 대한전자공학회 차기회장 선출



박병국 교수

대한전자공학회는 11월 29일 (토)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병국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제 45대 회장

으로 선출하였다. 2015년 1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Stanford 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AT&T Bell 연구소, Texas Instruments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1994년부터는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반도체공동

연구소장, 전기·정보공학부 부학부장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반도체 분야 영문지인 JSTS 편집위원장, IEEE 서울지회장, 각종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주요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 및 산업체 연구과제, 저술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설승기 교수, 전력전자학회 회장 선임



설승기 교수

2015년도 전력전자학회 회장에 설승기 교수가 선임됐다. 전력전자학회는 11월 28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경대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흥희 회장의 후임으로 설승기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월 1일부로 시작되었다.

정현교 교수, 차기 전기학회 회장 당선



정현교 교수

대한전기학회(회장 김호용) 2015년 차기회장으로 정현교 교수가 당선됐다. 대한전기학회는 11월 14일 서울 과학기술관에서 2014년도 제2차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차기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며, 2015년도는 차기회장으로, 2016년도는 회장으로 학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노종선 교수, 한국통신학회 신임회장 선출



노종선 교수

한국통신학회(www.kics.or.kr)는 지난 1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2015년도 회장으로 노종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통신학회는 또 수석부회장에 조용수 중앙대 교수를, 3명의 부회장으로 강충구 고려대 교수, 김동구 연세대 교수, 장영민 국민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신두 교수,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취임



이신두 교수

2015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으로 이신두 교수가 취임했다. 이신두 교수는 "학회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두 교수는 서울대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센터장을 지낸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수 동정

조보형 교수 전력연구소장 겸보
문승일 교수 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장학회 이사 겸직
조동일 교수 사단법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편집이사 겸직
차상균 교수 사단법인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이사 겸직

이신두 교수 미래연구위원회 위원 임명
이병호 교수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부회장 겸직
한국광학회 부회장 겸직
윤성로 교수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생물정보학 전공 겸무

연구실 수상 소식

수상명	수상자	연구실	지도교수	수상기관	일자
소춘상	하정익 교수	전기에너지 변환 연구실		전력전자학회 이흥희 회장	2014년 7월 2일
최우수 논문 발표상	투샬 산드한 Tushar Sandhan (박사과정)	인지지능 연구실	최진영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	2014년 10월 22일
우수논문 장학금	이용재 (박사 2학기)	전기에너지 변환 연구실	하정익	전력전자학회 이흥희 회장	2014년 7월 2일
Park's Research Grant Award	한용수 (석박통합 6학기)	전기에너지 변환 연구실	하정익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2014년 8월 11일
Oral Session Presentation Student Winner	이용재 (박사 2학기)	전기에너지 변환 연구실	하정익	IEEE ECCE 2014 General Chair	2014년 9월 18일
Best Paper Award 논문 제목: "Reactive Power Control and Loss Analysis of Transmission System in Offshore Wind Farms"	이가현 (석박통합 4학기)	전기에너지 변환 연구실	하정익	Wind energy Grid-Adaptive Technology Research Center General Chair	2014년 10월 22일
우수논문 장학금	정의훈 (석박통합 2학기)	전기에너지 변환 연구실	하정익	전력전자학회 이흥희 회장	2014년 11월 28일

심병호 교수

연구분야 신호처리, 이동통신, 정보이론
 Information System Laboratory
<http://islab.snu.ac.kr>



- 1997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학사·석사
- 1997-2000 공군사관학교 교관 및 전임강사
- 2005 일리노이대 (UIUC) 수학과 석사·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 박사
- 2005-2007 미 퀄컴 (Qualcomm)사 Staff engineer
- 2007-2014 고려대학교 컴퓨터통신공학부 부교수

□ 부담하신 소감이 어떠한가요? 새로운 학교의 느낌은 어떠한가요?
 먼 길을 돌아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고 행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저의 20대의 추억과 인생이 담겨있는 관악캠퍼스를 걸으면서 잠시 옛 생각에 젖어보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때 친구들도 이 곳에 없고 캠퍼스도 많이 바뀌어 정말 ‘새로운 학교’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즐거운 도전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연구 하시는 분야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압축센싱(compressive sensing)이라는 분야입니다. 압축센싱은 신호의 희소성(sparsity)을 활용하여 원 신호의 차원보다 훨씬 적은 관측치만으로도 원신호를 완벽하게 복원해 낼 수 있는 신호처리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을 통칭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신호에는 시공간적 상관성(correlation), 희소성 등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성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으며, 만 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복잡도나 필요한 메모리의 양을 줄일 수도 있으며, 시스템의 전력소모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래 압축센싱은 뇌영상, 통신, 기계학습, 아날로그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용량 안테나(massive MIMO) 기반 무선통신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안테나 시스템은 기지국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안테나를 두고 이를 활용하여 공간적 자유도(spatial degree of freedom)를 높이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높아진 공간적 자유도를 활용하여 현재의 LTE-A시스템보다 수십 배의 전송률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파일럿 신호 설계, 채널추정, 간섭제거, 피드백 오버헤드, 프리코딩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러한 대용량 안테나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겪었던 일화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대단한 일화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씀은 맡은 일에 대해서 좌고우면(左顧右盼) 하지 않고 저를 던져가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allas의 Texas Instruments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을 했는데 프로젝트의 테드라인을 앞두고 두 주 가량 집에 가지 않고 큐비클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San Diego의 퀄컴사에서 일할 때는 간섭제거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몇 달간 팀 멤버들과 새벽까지 쉴 새 없이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뿌듯합니다. 힘든 순간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라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 교수님의 학력과 경력을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런 경험들로부터 얻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다소 심플하지 않은 경험(?) 탓에 쓸데없이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로부터 인생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유연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학부시절에는 나무만 보고 지내는 답답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숲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의 다양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너무 과하지만 았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조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겨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젊을 때 다양한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가치 있고 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시간은 매우 유한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보기로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높은 우선 순위의 목표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굳게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자신의 역량이 한 차원 뛰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정을 즐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크게 갖는 것 못지 않게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먼 훗날의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위해 지금 이 시간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부도 즐겁게, 연애도 뜨겁게, 열심히 공부하고 잘 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학도에 게 의미 있게 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연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연구로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종종 나는 과연 밥값을 하고 사는가(Am I worth my salt?)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서 만난 Ali Almokhtar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었다. (영어로? 한글로? 라고 물어보긴 했다) 세는 시스템 최적화 연구실(지도교수 백윤흥)에서 연구 중이며, 현재 석사과정 3학기를 마쳤다. 예맨에서 온 그에게 이곳에서의 유학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다.

인터뷰 류기민

Please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Ali Almokhtar, I am a graduate student at electronic and computer engineering depar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September 2013 as part of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KGSP). Before enrolling into SNU, I spent one year in learning Korean Language in Sungkyunkwan University. Being in Korea is unique experience where I learned a new language with very interesting culture, I also got involved in winter sports like skiing and snowboard every winter holiday, along the way I had the chance to meet wonderful Korean friends in language



Ali Almokhtar

exchange programs and working with inspiring class mates. I am very thankful to have such opportunity to study and live in this remarkable country.

What kind of researches are you interesting in?

After working for 4 years as network security engineer, and based on the experience I gained during my 4 years of exposing to security threats and issues, I decided to continue my studies and conduct research on security in cloud systems, I am very happy and delighted to join SOR lab with professor Yunheung Paek and with very helpful and collaborative lab mates, this will be very beneficial and great leap for me to go forward to achieve my dreams and goals.

Pros and cons that you have experienced during school life in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one of the best university in Korea and one of the best in Asia, being postgraduate student in SNU requires you to be in Laboratory and conduct researches from the first semester which exposed you deeply to research field and improve your research skills, and also it allows you to think more widely and share y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with lab mates. However some classes are conducted in Korean language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foreigners to catch up everything, but most professors pay more attention to the foreigner students and provide them with extra materials and more help.

At the beginning, I was worried about my settlement in SNU and my course registration, but with the help of the staff of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I had no problems at all. I am really thankful to all of them who were very collaborative and answered my bunch of my questions with warm heart.

Any other words you want to say.

Coming to Korea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have made of my life, I learned a lot of things beside my academic life, I learned very interesting language although it's quite hard, a new culture, new sports, and new interesting people. I really appreciate this opportunity and I am thankful to my professor Yunheung Paek and friends and staff who helped me to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and offered me a hand in daily life and academic life as well.

2014 전공하나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 27일(토) 장소 : 경기도 용인 양지 파인리조트
주최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후원 : 삼성전자

전기·정보 공학부 하나되는 나들이

자라나는 떡잎도 활짝 피어 만개하는
꽃도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 행사는 내가 굉장한 줄기 안에
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던 좋은 기회였다. 학부에 입학한 후
설렘을 가득 안고 처음으로 참가한 전
체행사를 통해서 학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글 김한별(학부 14)

①반대향 운동회

R·롤루·랄라·C, 네 반이 다양한 종목으로 대결했다.

②Lab. 설명회

관심있는 연구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③감사나눔신문 유지미 기자 강연

감사와 나눔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었다.

④교수님과 대화

학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⑤장기자랑

전기·정보공학부 밴드 'Amplifier'의 무대!

‘전공하나’의 첫 시작은 굉장히 설레고 바빴다. 학생회
여서 대운동장 앞에 모여 사람들에게 티셔츠와 명찰을
나누어주었다. 한 박스로 쌓여있는 많은 티셔츠와 명찰
들을 정말 오랫동안 나누어주었는데 학부에 사람이 이
렇게 많았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전공하나’가 열리는 장소인 용인 양지리조트에 도착해
서는 롤루, 랄라, R, C반 모두 모여서 게임을 진행했다.
물풍선 게임, 흥내내기 게임 등을 하며 반 대항전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반이 상금을 가져가기로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물풍선 게임이었는데 물풍선 게임
은 남학우들이 여학우가 물풍선에 맞지 않도록 도우며
상대편 여학우가 물풍선에 맞도록 하는 게임이었다. 남
학우들이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물풍선을 던지고 막
는데 그렇게 모두 하나되는 모습이 너무 흥겨웠다.

반끼리 대항전을 끝내고 실내에서는 E-스포츠 종목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대회가 열렸다. 나는 이게임에 해설
자로 참여하여 좀 더 게임을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물풍선이 터질 때 마
다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물풍선이 터질 때 마치 시원하
다는 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더 재미있게
해설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대학원 연구실 설명이 진행되었다.
방금까지 같이 놀던 선배들이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
을 보니 나 역시도 더 열심히 설명을 들었던 것 같다. 막
상 전기·정보공학부의 학부생이면서도 우리 학부에 어



편 연구실이 있으며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좀 더 학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여태껏 학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교수님들의 뉴스기사만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설명을 듣고 결과물을 보니 제어, 회로, 통신,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김형규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연구실 설명이 끝나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많은 교수님들이 빠짐없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의 공통 고민이 진로여서 그런지 대학원과 연구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고 갔다.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임해서 그런지 오히려 교수님들이 당황하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과의 면담시간이 끝난 후에는 각 반별로 숙소에서 뒷풀이를 진행했다.

학부에 입학한 후 설렘을 가득 안고 처음으로 참가한 전체행사를 통해서 학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자라나는 떡잎도 활짝 피어 만개하는 꽃도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 행사는 내가 굉장한 줄기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우리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옮기시려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았다. 그런 생각하니 우리가 한 일이 더욱 뿌듯했다. 또 집 안에 계시던 할머니가 나와서 수고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셨을 때는 더더욱 뿌듯했다.

글 원미미(학부 14)

이번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연탄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추운 겨울 연탄을 직접 전달하면서 따뜻함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았다. 아침 10시까지 거여역에 모여서 봉사활동을 준비했다. 이날 하는 연탄 봉사에는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도 약 6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김태환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분들까지 함께 참여하였다.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기 위해 아침부터 모였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 봉사를 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힘이 났다. 늦게 도착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10시에 같이 모여 봉사활동을 하는 장소까지 이동했다. 사실 서울에 연탄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하철 역과 별로 멀지 않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지역에 우리가 연탄봉사 할 곳이 있었다.

먼저 옷에 묻지 않기 위한 우비와 고무장갑, 비닐장갑, 마스크를 지급받았다. 나눠 받아 친구들과 서로 도와 착용하면서 연탄봉사를 한다는 게 실감이 났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한 가구당 200장씩 총 5가구에 10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연탄이 모여있는 곳부터 학생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서서 직접 연탄을 때는 곳 부근에 연탄을 쌓는 일을 했다. 1000장의 연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많은 연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하시는 분의 조언을 받아 우리는 조를 두 개로 나누어 연탄배달을 시작했다. 첫 번째 집부터 연탄배달을 시작했는데 연탄이 있는 곳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학생들이 서서 옆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했다. 하나씩 가지고 옮기면 훨씬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옮기니까 많이 힘들지는 않았다. 나는 마지막 연탄을 쌓는 곳 바로 앞에서 연탄을 날랐다. 사실 옮기는 것은 하다 보니 속도가 붙어서 잘 했는데 연탄을 쌓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균형을 맞춰가면서 빠르게 전달되어 오는 연탄을 쌓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경험이 있는 선



배님들께서 잘 쌓아주셔서 빠른 시간에 첫 번째 가구에서의 봉사활동을 끝냈다. 200장의 연탄을 옮기면서 계속되는 동작에 허리와 팔이 아프기도 했지만 연탄을 옮길 때 마다 하나 둘 이렇게 구호를 외쳐가며 전달했더니 훨씬 재미있고 어렵지 않게 연탄을 옮길 수 있었고, 더욱 일사 분란하게 연탄 배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 가구는 약간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고 차도 중간으로 날라야 해서 조금 더 힘들었다. 차가 지나갈 때는 비켜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하나로 서서 연탄을 날랐다. 마지막에는 둘로 나뉘어 젖던 조가 한군데로 모여 모든 연탄을 무사히 전달하였다. 봉사활동 당일에 옷을 단단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웠다. 장갑을 썼는데도 손이 시리고 발도 시리고 했는데 그래도 함께 봉사하면서 열정들 때문에 춥고 힘든지도 모르고 봉사활동을 잘 해낸 것 같다. 처음에 많아 보이기만 했던 연탄들을 막상 옮겨보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았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옮기니까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옮기시려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았다. 그런 생각하니 우리가 한 일이 더욱 뿌듯했다. 또 집 안에 계시던 할머니가 나와서 수고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셨을 때는 더더욱 뿌듯했다. 학부에서 처음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이렇게 학부단위로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기뻐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이 있으면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K21플러스 지원 해외석학초청강연 및 해외학회 참관 후기

해외석학초청세미나 후기

Systems Research at IBM ARL

연사: Fadi Gebara, Peter Hofstee, Jente B. Kuang

강연일: 2014년 10월 17일

이 세미나는 IBM이 Austin Research Laboratory (ARL)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 관련 최신 연구에 대한 것으로, 특히 IBM이 개방하기로 한 POWER architecture를 중심으로 한 OpenPOWER Foundation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신 processor core인 POWER8, 그에 연결된 고성능 flash storage 등과 같은 주요 기술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IBM의 핵심 멤버인 세 명이 각각 발표 하였는데, 처음 발표에서는 senior manager인 Fadi Gebara 박사가 IBM의 연구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Open Collaborative Research (OCR) 등 대학과의 협력 연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OpenPOWER Foundation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는 IBM의 POWER architecture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를 이용하는 열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문 지식이나 비용 등의 공유를 통한 기술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Peter Hofstee 박사가 Big Data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Hofstee 박사는 처음으로 GHz 동작을 한 CMOS processor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chief architect로서 Cell Broadband Engine의 synergistic processor 설계 팀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OWER8 architecture와, 이 core가 지원하는 Coherent Accelerator Processor Interface (CAPI), 이를 통하여 연결된 고성능 flash storage 등이 어떻게 결합되어 전체 성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Jente B. Kuang 박사가 flash storage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하였다. 주로 서버 목적의 시스템으로서 고성능을 달성하면서도 신뢰성도 높이고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Fadi Gebara(좌), Peter Hofstee(중), Jente B. Kuang(우) 박사

이번 세미나는 IBM ARL에서의 system 관련 첨단 연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다양하고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등 연구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기영 교수

해외학회 참관 후기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4 (ECCV'14)

방문국가: 스위스 / 방문기간: 2014년 9월 6일~12일



지난 2014년 9월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4 (ECCV 14) 학회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렸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CVPR, ICCV, ECCV의 3대 주요학술대회 논문 발표가 대다수의 SCI 저널 논문 발표보다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러한 3대 주요학회의 통상 논문 채택률은 23~28% 정도로 매우 경쟁이 심하며 본 ECCV 14 학회의 논문 채택률은 25.1%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학회로서,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업계 동향을 살핀다. 필자는 "Alpha Matting of Motion-Blurred Objects in Bracket Sequence Images"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포스터 발표를 위하여 학회에 참석하였다.

발표한 논문의 핵심은 대부분의 상용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브라켓 시퀀스 이미지 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이다. 브라켓 시퀀스 이미지는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HDR) 영상을 얻기 위해 같은 장면을 노출을 변화시켜가며 촬영한 영상들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경우 고스트 이펙트가 발생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브라켓 시퀀스 이미지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제거하여 향후 HDR 영상 합성 등에 이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필자는 3시간에 걸친 포스터 세션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컴퓨터 비전은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해주거나 두 스테레오 영상을 정합하는 등의 로우 레벨 비전부터 영상으로부터 상황 인지, 물체 인식 등을 수행하는 하이 레벨 비전을 총 망라하는 넓은 분야이다. 이번 학회는 다른 학회들과는 달리 하나의 세션으로 진행되어 모든 논문 발표를 놓치지 않고 참관하여 컴퓨터 비전 분야의 전체 연구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많은 연구 실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야의 대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잡는데 무척이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학회의 참석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연구 내용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연수를 지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BK21플러스사업에 감사를 드린다.

명희수(석박사통합과정 / 지도교수: 이경무)

해외 장기연수 후기

Oracle & Stanford University

방문국가: 미국 / 방문기간: 2014년 7월 14일 ~ 8월 29일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미국 오라클사와 스탠포드 대학교에 장기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장기연수의 목표는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XMODEL이라는 혼성신호 시뮬레이션 툴을 미국의 우수 연구 기관인 오라클랩과 스탠포드 대학교의 VLSI 연구실에 배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델링 기법들을 전수한 후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XMODEL은 이미 여러 국제학회 및 논문지를 통하여 그 우수성이 다양하게 입증된 바 있는데 중요한 특징은 정확하면서도 동시에 빠른 시뮬레이터라는 점이다. XMODEL은 시스템 베릴로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XMODEL이 기존 시뮬레이터와 다른 점은 연속적인 신호를 매 시간에 따른 점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Analytical equation들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그 조합이 변할 때에만 계산을 수행하는 Event-driven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기존 아날로그 시뮬레이터에 비해 매우 정확하면서도 100배 이상 빠른 시뮬레이션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장기연수 기간 동안 오라클과 스탠포드의 연구자들과 XMODEL을 이용한 새로운 혼성신호 IC모델링 방법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미국의 우수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생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XMODEL을 실제 회로 설계를 하는 회사와 대학교 연구실에서 사용함으로써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 연구한 새로운 혼성신호 IC 설계 방법을 오라클에서 다음 설계프로젝트에서 활용하기

BK21플러스 사업이란?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2019년(7년)동안 장학금 지급, 해외 석학초청, 장단기연수 지원 등을 통해 우수 대학원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후기들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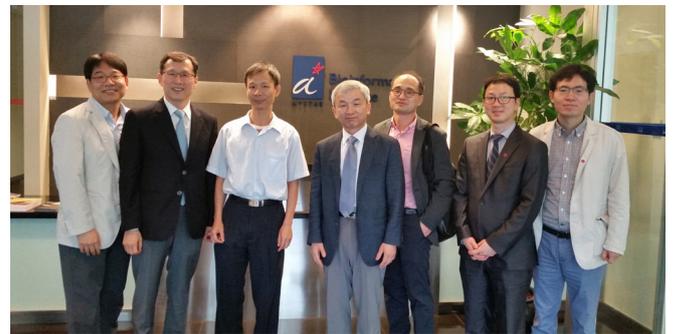
로 하는 등 우리 연구실의 XMODEL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지원해주신 BK21플러스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손세욱 (석박사 통합과정 / 지도교수: 김재하)

해외 워크샵

SNU I2R NUS Wireless Communications Workshop, Bioengineering Workshop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방문국가: 싱가포르 / 일정: 2015년 1월 9일



WIRELESS COMMUNICATIONS WORKSHOP

논문명	발표자
Overhead Reduction through Joint User and Antenna Group Selection in FDD Massive MIMO Systems	이광복 교수
On the sparse detection of non-sparse signals for massive MIMO uplink	심병호 교수
Blind Interference Alignment for K-user MISO Broadcast Channels	이정우 교수

BIOENGINEERING WORKSHOP

논문명	발표자
Advanced Neuroimaging: Visualizing Myelin in the Brain	이종호(B) 교수
High-Sensitivity Strategy for LED Based Water Pollution Sensing	박영준 교수
Rapid and Robust Processing of Large-Scale Short-Read Sequencing Data	윤성로 교수

해동 다독자상 수상자 인터뷰

이재현(박사과정 12학번)

- 다독자상 수상 소감 한마디

3회 해동 다독자상에 1등 수상자가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를 많이 하지 못한 채 대학생활이 끝나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적에 얽매인 채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나 전공 외의 공부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 대학원에서는 틈나는 대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중앙도서관까지 찾아가기에는 부담이 되었고, 보고 싶은 책도 대출 중인 상황이 많았는데, 해동학술정보실을 이용하다 보니 손쉽게 원하는 책을 대출할 수 있었고,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되다 보니 이렇게 다독자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나에게 독서는?

저는 독서를 통해서 잃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읽든간에 그 내용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과 교훈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원 생활의 경우, 자신의 세부 전공에 관련된 내용만 접하다보면, 한정된 주제 안에 갇혀있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독서를 통해 내 자신의 경험의 폭을 넓히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공 공부에 대한 필요한 책을 찾아보면서 연구에 대한 도움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독서는 여러모로 제 대학원 생활에 힘이 되어주는 취미이자 해결책이었습니다.

- 추천 도서와 이유

저의 추천 도서는 다케우치 가즈마사가 쓴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입니다. 이미 많은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이 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학을 연구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었을 때,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하는 연구 역시 큰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우들이 엘론 머스크처럼 열정을 갖는 리더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 드립니다.

- 해동학술정보실에 바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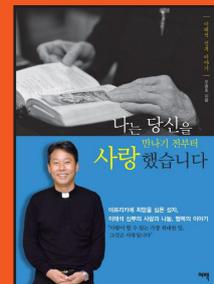
해동학술정보실에서 많이 대출되는 도서에 대한 리스트 등을 작성해서 학생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학우들이 무슨 책을 많이 읽었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알 수 있어서, 단순히 유명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읽고 공유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상자 추천 도서

이재현의 추천 도서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

다케우치 가즈마사 저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김소현의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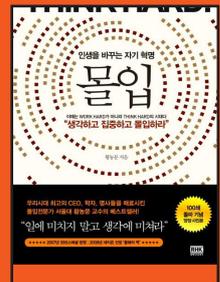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우광호 저
출판사 여백

이재은의 추천 도서

<몰입>

황농문 저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



김홍찬의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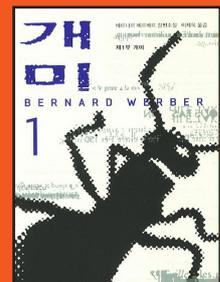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저
출판사 열린책들

정석원의 추천 도서

<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출판사 열린책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인적사항

성명[회사(단체)명/대표자]		<input type="checkbox"/>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구분	<input type="checkbox"/> 동문	학부(과)	입학년도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부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 <input type="checkbox"/> 직장)		이메일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직장	직장명	부서 직위

약정정보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액 기부	<input type="checkbox"/> 월 정액 기부
	일금 원 (₩)	매월 []원씩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년 월 일	년 월 부터 매월 정기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분할납 년 월 ~ 년 월 ()회 분납	
희망사용처	<input type="checkbox"/> 학교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SNU Challenge 모금사업 [※ 뒷면의 핵심모금사업 참조]	
	<input type="checkbox"/> 기관 및 용도 지정 (지원기관 : 대학, 학과, 연구소 등) [전기·정보공학부] <input type="radio"/> 위임 <input type="radio"/> 학술 <input type="radio"/> 장학 <input type="radio"/> 연구 <input type="radio"/> 시설 <input type="radio"/> 연구기자재 <input type="radio"/> 기금교수 <input type="radio"/> 대학문화 <input type="radio"/> 도서 <input type="radio"/> 기타 []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원금보존)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원금사용)		
기금명칭 (단,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input type="checkbox"/> 지로입금	연락주시면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급여공제	

필수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정보동의	개인정보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예우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Tel: 02-880-8004, 02-871-8146 Fax : 02-872-4149

E-mail: gift@snu.or.kr, http://www.snu.or.kr

주소: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연구공원 본관2층

* ARS 후원전화 060-700-8004 한 통화로 학교발전기금 5,000원이 적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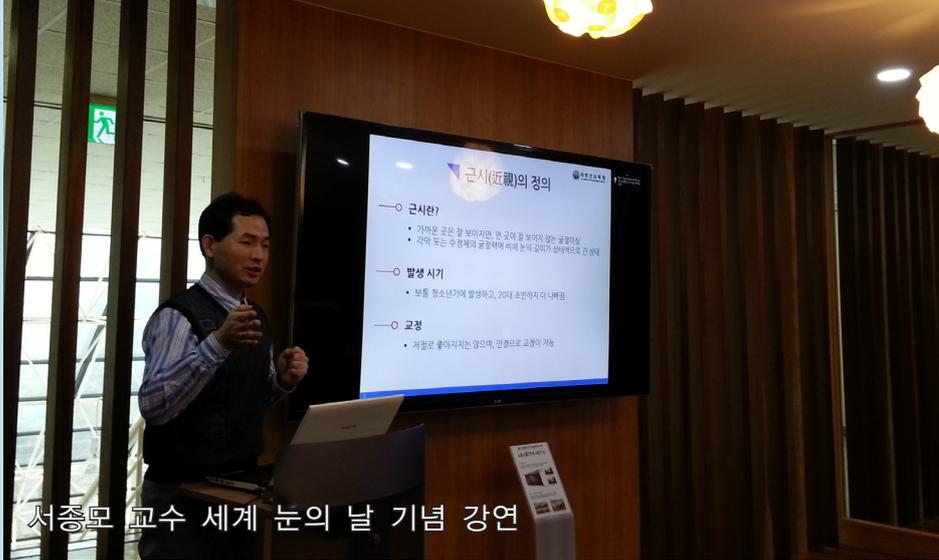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전액 소득 공제,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SNU ECE LIFE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소식지
No.12

발행인 학부장 이광복
 발행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편집담당 조도희
 02-880-1792
 quest03@snu.ac.kr
 홍보기자 류기민(학부 11)
 발행월 2015년 2월



서종모 교수 세계 눈의 날 기념 강연



2014 전자전 금상 아이쿵 (최혁주 외 2명)



2014 축구대회 우승 FC몽붕 (홍윤기 외 17명)



2014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